3 - AUG - 9
Copy ____ 1960

우리의 젊음을 깃발처럼 높이 들자!

김 우 철

기쁨과 슬픔, 자랑을 나누며
조국을 받들어 10년을 걸어 왔다
벗이여! 전우들이여!
명절 차림 가쁜이 나선 우리들을
8·15의 아침이 눈부시게 맞는구나

이 아침 그대들은 꽃다발을 안고
거리와 마을의 해방탑을 찾아 가리
쏘베트 용사들의 은공을 그리며
환송의 그 날을 회상하며
탑 앞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리리라

……해방된 이 나라의 주인들이여
과수원처럼 아름답게 꾸미라
벌레를 잡고, 물을 주라…… 던
그들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고
그들의 애정이 온몸에 배여 있어……

층층 높이 솟은 우리의 건설
새 생활은 혈맥처럼 높이 뛰고
전야에는 오곡이 무르익어
협동의 로력 열매를 맺는
보람찬 밝은 이 아침

승리로 자랑찬 우리의 젊음을
깃발처럼 높이 들고
경축의 노래여 울려 가라
공장과 전야 어촌을 누비여
백두산 기슭 국영 농장에도……

수다스런 인사는 해서 무엇하랴
긴 사연이 필요치 않다
당과 조국 위해 한길에 선 우리거니
김 일성 광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심장의 고동을 그대들은 들으리라

그대가 지금 푸랑카트 높이는 곳
백두 림철의 구내이거나
지하 수천척 갱도 밖에서도
바로 지척에서 우러러 보리라
우리를 축복해 주는 수령의 손길을!

나는 알고 있다 그대들이
경축 경쟁의 승리자임을—
계획을 앞당긴 늠름한 기세로
혁신자의 대렬에 나선 그대들
축하의 노래가 수도로 울려 온다

모란봉 언덕 해방탑을 향하여
은인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열린 거리
오늘을 경축하는 꽃보라 속에
해방의 은인들, 피로 맺은 전우들
형제의 나라 벗들도 하냥 있어……

평화와 친선의 기치를 높이거니
오늘의 이 영광을 나누지 못하는
남반부 형제들에게 인사를 보내자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굳게 손을 잡고 그날을 안아 오자

오리라 반드시 줄기찬 투쟁으로
3천만이 환호하는 그날은 오리라
보천보의 드메에서 남해의 포구까지
민주 대로는 광활하게 열리여
빛나는 개혁이 3천리에 뻗으리라

국제주의 기치를 눈동자로 지키며
민주 기지 다지는 영예로운 나날—
낡은 것 뿌리 뽑고 새것을 키우며
건설을 층층 높이 쌓아 올리는
동무들이여 오늘의 보람을 시위하자

영광의 이 아침! 첫 햇발을 안고
비거리로 광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고장과 일터는 달라도
한뜻으로 조국을 받들어
모두 제 자리를 지키노니

이땅의 주인된 자랑을 나누며
해방의 은인들이 열어 준 영광의 길로
벗이여! 전우들이여!
조국 만년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깃발처럼 높이 들자!

백인균 그림

기쁨과 울분

8월의 평양—아름다운 거리에 노랫소리 흥겹고 창조적 로력의 자랑찬 성과로써 열돐째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마다가 기쁨으로 들끓는데……

오늘의 서울—험악한 거리에는 아우성이 비통하며 하루 많은 모진 설음에 사람마다가 참을 수 없는 울분으로 뒤설렁 거린다。

명절! 그것도 우리 조선 인민이 일제의 쇠사슬에 얽매여 신음하다가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민족적 명절임에야 그 감격과 기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 영광에 찬 명절날에 남조선에서는 감격 아닌 공포에 기쁨 보다도 슬픔에 싸인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은 뻔하다! 지금 남조선에는 8·15를 해방의 명절날로서가 아니라 제 놈들의 『멸망의 날』로 간주하는 친일파 및 민족 반역 도당들이 놈들의 새로운 상전—미제의 발굽치를 핥으면서 꼬리를 치고 있으니…… 명절의 즐거움이 있을리 만무하다。

속담에 "도적놈이 제 발 저리다"는 격으로 해방 후 10년 간을 두고 강압, 략탈, 테로, 살인, 등 "미국식 정치"를 본받아서 감행한 제놈들의 온갖 만행을 남조선 인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라 이날 따라 더욱 겁을 내여 인민들을 『엄중 단속』하기에 거품을 물고 발광을 하는 것도 우연치 않은 일이다。

글쎄 생각해 보라…… "쥐 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고 하는데 그러나 10년 간을 두고 언제 한번 맘 놓고 떳떳이 살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재는 넘을 수록 높고 내는 건널 수록 깊다—는 격으로 만 생활이 더욱 더 암담해 지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 울분이 오죽하겠는가를…… 그러니 해방의 날—민족적 명절을 제놈들의 『멸망된 날』로만 간주하고 있으며 또 『멸망의 날』이 될까봐 겁을 먹고 있는 반역 도당들로서는 이 날에 『비상 경계』를 할 수 밖에 딴 대책이 없는 것은 응당한 사실이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험난한 생활을 겪는 동안에 누가 자기들을 생죽음의 길로 몰아 넣고 있으며 영광스런 8·15가 안겨준 통일 독립의 민족적 숙망을 가로막는 간악한 원쑤인가를 똑똑히 알고 있다。뿐만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해방 후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를 받들고 진정한 인민 정권의 주인이 되여 10년 간에 거둔 찬란한 성과에 고무되면서 오직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이 이룩되는 그 때만이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때문에 원쑤들이 제 아무리 『비상 경계』와 『엄중 단속』으로 발악이 심하다 할지라도 오늘의 명절을 축하하여 보내는 뜨거운 동정과 불멸의 전망과 불굴의 투지로써 더욱 드높이 불러주는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환호성에 남반부 인민들은 고동치는 가슴을 안고 북천을 우러러 보면서 새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발악하는 원쑤들에겐 어김 없이 10년 전 8·15의 일제와 같은 운명만이 있을 것이며 조선 인민은 기여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이룩하고 하나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더욱 투쟁의 불길을 높일 것이라고……

승 화

영웅적 인민의 힘

8·15 해방 후 진정한 인민 정권의 주인이 된 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창조적 로력의 자랑찬 성과로써 8·15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과연 민주 수도 평양시의 복구 건설은 찬란합니다
—정전 직후인 1953년 겨울만 하드라도 이곳이 모두 폐허였었지요
—그러나 영웅적 인민의 힘은 불과 2년 동안에 이렇게 건설했지요

최한진 그림

백인균 그림

꽃봉오리들의 친선 편지

해방후 우리 나라의 산업은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비롯하여 당과 정부의 인민적 시책과 더불어 쏘련 중국 및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인 지지와 원조가 있는 조건 하에서 대규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항상 따뜻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념을 금지 못하면서 8•15 해방 10주년을 더욱 높은 창조적 로력 성과로써 맞이하고 있다

—할아버지! 빨리 빨리 제 편지 받으세요!
—어허… 너도 또 너도… 어느걸 먼저 받을까!

꽃피는 살림

—여보! 우리 막돌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걸 좀 보세요

—유치원에 가는 것이 제깐에도 좋은가부지…… 같이 손잡고 가는 애는 순희 안야?

—앞 집 순희야요! 아주 오젓하게 짝지여 걸어 가지요……

—막돌이가 벌써 저렇게 커서 유치원엘 다니니…… 참 좋은 세상에 태여났지 10년 전만 해도 로동자들의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게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소

—정말 그래요 순희네 집만 보드래도 그 아들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해서 순희 어머니가 늘상 가슴을 쥐여뜯더니 해방이 되자 모두 학교에 보내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큰 아들은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고 순희 어머니는 앉으면 자랑이야요

—어찌 순희네 집 뿐이겠소 다 그렇지…… 나만 하드래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것이 이제는 기술 서적까지도 읽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해방 후 10년 간에 미꾸라지가 룡된 셈이지…… 당신만 하드래도 그렇지 않소 성인 학교며 간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말이요 직장에서는 산 전 산 후의 휴가를 주어 또 어린애는 병원에서 낳구 거기에다 직장 탁아소가 있어 직장 유치원이 있어…… 해방 후 정말 당신도 호강하지……

—그야 비단 나만 그런가요 뭐…… 다들 같지요 하긴 나도 결혼하면 직장엘 어떻게 다니나 하고 걱정도 했드랬는데 인제 걱정될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사택 앞에는 직장 상점이 있겠다 어린애는 직장 유치원에서 맡아 주지 또 통근 뻐스가 있구……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해방 후 우리 생활이 마치도 죽은 나무에 꽃이 핀 것만 같기도 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드니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8•15 해방 후 10년 간의 변화란 이만 저만한게 아니요 참……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보! 8•15 명절 차비도 어서 해야지요…… 오늘 저녁엔 같이 백화점에 들리자요 8•15 명절에 입힐 막돌이의 양복감을 사야겠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당신 양복도 찾구……

—가만 있소? 여보 저 라디오 소리를 좀 더 크게 하오 물가 인하에 관한 내각 결정이 채택되였다고 보도하는 것 같소

—아니 여보 8월 1일부터 생활 필수품의 국정 소매 가격이 인하된대요!

—좀 떠들지 마오 각종 면직물이 45,8% 아동 고무신이 44% 권연 1급 30% 법랑철기류 46,7% 가정 약품이 뭐 77%?!

—아이 남의 어깨는 왜 치세요

—여보 정전 후 벌써 네번째 물가 인하가 아니요---그래 내 손이 가만이 있어야 하겠소

—아이 참 고마워라! 오늘 막돌이 양복감을 사고도 돈이 꽤 남겠어요 그것으론 뭘 살까요?

—그걸로는 당신 여름 내의를 사면 되지 않소

—식구가 모두 새 것을 사게 되는군요 그리고도 법랑철기를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여보 오늘은 공장이 들먹 거리겠소 이 소식을 듣고서…… 가정들에서도 모두 우리와 같이 웃음 꽃을 피우고 있을께지 난 오늘 저녁에 직장 구락부에서 영화 구경을 하자고 했드니… 백화점에나 가볼까

—오늘은 꼭 제 계획대로 하셔야 해요

—직장에선 내가 상부인데 그래 막 관료주의를 써…

—그러나 가정에선 제가 주부니까요 저런 통근 뻐스가 와요 『직장장 동무!』 아니 여보! 어서 나가시자요……

—좋소! 『동무』 말대로 퇴근 후엔 함께 백화점에 들리기요 나두 맥주 생각이 나는구려… 앗차 여보! 그 가방을 주구려……

두 부부는 쌍 나란히 통근 뻐스가 서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 갔다。 마치도 막돌이와 순희들마냥……

장 필 순

잊을 수 없는 벗

축로공 현식은 먼동이 트자 아들 용구에게 꽃다발을 들려서 앞세우고 해방탑을 향하여 사봉리 사택 마을을 떠났다。 해방탑까지는 십오리가 잘 된다。 『아버지! 우리가 꼭 일등일 거예요』 『아무렴! 우리가 일등으로 해방탑에 가야지……』

좋와라고 껑충 껑충 뛰여가는 아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하였다。

—해방동이…… 그렇지! 용구는 우리 공화국과 함께 벌써 십년을 자랐구나! 저 애를 볼 때면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인 그 쏘련 군대 동무들이 못견디게 그리워 지거든—

그의 머릿 속에는 십년 전의 모든 일들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왜놈 때부터 제철소에서 막로동을 하던 일이며…… 8•15 해방을 맞이하여 쏘베트 군대들을 만나던 때의 일이……

쏘베트 군대는 1945년 8월 13일 과감한 상륙 작전으로 청진시를 해방시키고 한 부대는 제철소를 중심한 송평 지구에 주둔하고 있었다。

며칠 후 현식은 제철소 로동자 대표들 축에 끼여 송평 지구 사령부를 방문하게 되였다。 이미 쏘련 군대가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현식의 마음은 어쩐지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한 바와는 달리 키가 후리 후리한 사령관은 문 밖에까지 나와서 『따와리쉬! 따와리쉬!』 하고 웃음이 가득찬 얼굴로 반갑게 맞아 주면서 커다란 손을 내밀어 로동자들의 손을 으스러질듯이 힘껏 쥐고 흔들었다。

현식은 너무도 의외여서 사령관실에 들어간 후에도 어리둥절하고 서 있는데 사령관은 십년 사귄 동무나 대하듯이 로동자들의 어깨를 툭툭치면서 『따와리쉬! 해방된 이 나라의 주인 동무! 앉으시오…』 하고 웃으면서 친히 쏘파에 앉히였다。

현식은 모든 일이 그저 꿈속만 같았다。 일제의 군대 같으면 졸병의 곁에도 감히 갈 수 없었던 자기들이 아니였던가— 그런데 그 왜놈들을 몰아낸 쏘베트 군대의 사령관은 과연 어떠한가?

현식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언제 이 세상에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로동자들은 사령관에게

『쏘련 군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제 통치 밑에서 당신들이야 말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령관의 높은 겸손성에 대하여 로동자들은 다시 한번 경탄하였다。

『우리들은 제철소 문제에 대하여 상의를 할려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제철소의 주인들은 당신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철소 복구 사업을 힘껏 도와드릴 것입니다』

너무도 명확한 사령관의 대답에 로동자들은 다만 새 힘을 느낄 뿐이였다。 사령관은 로동자들에게 워르까를 딸아 주면서 몇번이나 『해방된 조선 인민을 축복한다』 고 말했다 헤여질 적에도 사령관은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정문 밖에까지 나와 로동자들을 바래주면서 손을 흔들었다。

현식의 골수에 조각처럼 깊이 새겨진 사령관의 정겨운 이 인상은 그후 모든 쏘련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한결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다。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쏘베트 사람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그들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또 진정한 원조를 주었다! 지금 우리 김책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내뿜는 세찬 연기는 조국의 무궁무진한 륭성 발전을 상징하듯 하늘 높이 치솟고 있지 않은가? 아 잊을 수 없는 사람들!—

현식의 눈 앞에는 사령관의 웃음띤 얼굴과 또 많은 그와 비슷한 얼굴들이 차례로 떠 올랐다。

『아버지! 저 구름다리 언덕만 넘으면 해방탑이예요……』 하고 떠들면서 좋와라고 달음박질 하는 아들의 뒤에서 현식의 발걸음은 한결 더 가벼워졌다

석 봉

전 세계는 당신에게 조선에서 손을 떼라고 충고하고 있지 않은가!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네!

당과 정부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더불어 경공업 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있다 경공업 부문 기업소들에서는 날로 다종 다양하고 질 좋은 물건들이 생산되며 원가는 계속 저하되고 있다 공화국 정부에서는 금번 또 정전 후 네번째 되는 생활 필수품의 국정 소매 가격 인하에 관한 내각 결정 66호를 채택하였다

—질 좋은 물건이 자꾸만 나오고 물가는 또 내려 가네! 지하자 좋네! 얼씨구 좋다!

송용남 그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제 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전체 농민들은 알곡 증산을 위한 새로운 결의로써 기세 높이 투쟁하고 있다

이 기세로!

흉작—에크… 무서운 기세로군 이젠 발 붙일 곳이 없구나

최한진 그림

「건달꾼」

시꺼멓게 흐리였던 하늘은 말끔히 개이여 갑자기 무더운 햇발이 내려 쬐인다。

제대 군인 오 승찬은 제초 작업을 하느라고 바람개비마냥 손을 휘두른다。

『야—뿌리가 긴데』승찬은 짐짓 이렇게 말하며 잡초를 잡아 뽑는다。

『길면 어때? 우리 손이 미치기만 하면 영락 없어 천년 묵은 억새밭을 이렇게 개간했는데 잡초 쯤이야 문제 있나』

『참 잡초를 뽑아 주면 벼들이 무럭 무럭 자랄거야』

『그러길래 잡초를 한대도 남겨선 안된단 말야』

작업반원들은 두줄이 벌게 돌피와 가래따위 잡초를 뿌리채 뽑아 치운다。

그러나 정 태수는 아침결에 날씨가 좀 흐린 것을 보고 비가 퍼부울 것이라고 하며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집에 들어가 작업반원들이 모두 땀 흘리고 있는 사이를 네 활개를 펴고 누워 있었다。

『비 안 오려나… 비가 와야 편안히 쉴텐데…』그는 초조하게 하늘을 쳐다 보며 혼자 중얼거린다。

이때 학교에서 돌아 온 순희가 눈을 깜박거리며 물었다。

『아버지 남들은 모다 일 나갔어요…』

『인제 비가 와 저 구름이 이쪽으로 쏠리면 비가 와…』

『해가 쨍쨍 거려요』정 태수는 더 주어 섬길 말이 없어 큰 눈을 껌벅거리면서 이윽고

『버르장머리 없이…』하고 소리를 질렀다。

× ×

승찬은 지난 봄에 제대되여 고향인 평남 증산군 풍정리에 돌아 오면서 우선 농경지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힘썼다。그리하여 억새가 우거졌던 7천평의 넓은 벌판을 새 수로를 만들어 개간하는 사업에 앞장 나섰다。

그러나 정 태수는 그때 목에 핏줄을 세우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정신 나간 소리 그만두 그걸 개간할 수 있다면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안했겠소 젊은 혈기가 왕성하다구 해서 되지도 않을걸 하자고 하는건 정신 없는 사람이나 할 것이요』정 태수는 적극 반대하였던 것이였다。

작업반원들은 하나의 잡초도 남기지 않고 뿌리를 뽑고 벼 포기들이 아지를 많이 치게끔 대밑까지 손으로 들며주며 제초작업을 한다。지난해까지 억새가 키를 넘게 서고 물새들이 둥이를 틀고 있던 대향골 논벌이다。

『잡초 때문에 마음대로 크지 못하던 벼들이 이젠 무럭 무럭 자랄테지!』승찬은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정 태수 동무는 왜 여태 안와?』논판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제일 풀이 많은데를 매고 있던 득칠이가 말했다。

『글세 말예요。우리 작업반은 오늘 또 꼴지를 할거예요 정 태수 동무는 정말 빨리 머리를 씻어야겠어요』

녀성 작업 반원들의 말이다。

『그래요 정 태수동무에겐 아직도 협동 조합에 이름을 걸어 놓고 쉬운일 만 찾으며 로력 일을 많이 받자고만 하며 공동 재산을 아낄 줄 모르는 낡은 사상 잔재가 있소 그 동무를 빨리 교양을 주어 새 사람이 되게 해야 할텐데…』득칠이는 타해진 음성으로 말했다。『그런데 낡은 머리를 씻지 않고 고집만 부리니…야단이야…』승찬은 걱정스러웠다。『정녀 동무! 잘좀 충고를 주오』

그의 옆에서 김을 매고 있던 녀성 작업반원 하나가 정태수의 안해인 김 정녀를 힐끔 보고 말했다。

『이 억새밭을 개간할 때에는 태수 동무는 "괜히 안될걸 한다고 하며 반대하였소』득칠의 음성은 높다。

『국가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더 잘 살게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내각 결정을 채택했소 우리는 더욱 알곡 총 수확고를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해 첫째 농경지 확장과 토지 리용률을 제고해야 하우』승찬은 득칠의 말이 끝나자 뒤를 이여 말했다。

『그러니 더 열성적으로 일해야 할텐데 태수 동무는 개간 사업을 반대했지 어제는 소 타고 달구지를 몰다가 개울에 쓸어 넣어 망가뜨리였지 그리구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흐리였으니 비가 올거라고 미리 앉아서 『점』을 치며 집에 들어갔소』득칠의 마음은 괴로웠다。동지로서 교양을 줘야할 책임도 느끼는 한편 분하기도 했다。

『정말 이 논판에 잡초를 뽑으니 벼들이 춤 추며 싱싱히 자라는 것처럼 정 태수 동무는 빨리 낡은 사상 잔재를 씻어 버려야 할텐데 다른 동무들도 그랬지만 나는 태수 동무를 만나는대로 충고를 주었는데 종시 잘 듣지 않는단 말야… 앞으로 더 힘써 꼭 바로 잡아야 하겠는데…』승찬은 묵직히 말을 했다。

× ×

『비 안 오는군…』그 사이 정 태수는 구들 바닥에 잔등을 붙이고 누워 있으니 사지가 쭉 펴이기는 하나 마음은 송곳 방석에 앉은 것 같았다。

『구름짱을 보면 비올듯 한데… 조화로군』그는 여전히 초조하게 하늘만 쳐다본다。

이때 쉴 시간을 타서 그의 안해 김 정녀가 달려왔다。

『여보 빨리 일하러 나가시자요 당신 때문에 모다 걱정 해요』

『걱정? 「건달꾼」이라고 욕하겠지…』

『아니요… 다른 동무도 그렇지만 승찬 동무는 군대에 나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 졌어요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김 정녀는 아까 작업반에서 들은 사실들이 감동되였었다。승찬이가 진정으로 정 태수를 바른 길을 걷도록 교양을 주자는 것이 가슴을 때리였다。

『빨리 작업반으로 일하러 나가시자요』그는 다급히 재촉한다。순희도 어머니 치마자락을 쥐고 아버지를 쳐다 본다。

『이제 곧 비가 와 그러길래 바닷가 날씨라구 하잖소』그도 마음이 절리는지 얼마간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비구름은 바닷 쪽으로 구풀 구풀 몰키여 가고 있다。종시 비는 안올 차비다。

『비가 안오겠군…』그는 바다 쪽을 향해 발돋음해 본다。얼마 후 그는 뒷통수를 긁으며 작업장으로 나가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정 태수 동무! 그 잡초가 있기 때문에 이 논판의 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허허허…어서 잡초를 뽑으십시오!』승찬이가 반겨 말한다。

『그놈의 하늘이 조화를 부려 나를「건달꾼」으로 만들었어…』정 태수는 승찬을 보고 이렇게 히히 웃으며 일을 하는 것이였다

(류 달)

결과는 이렇다

최영근 그림

—아버지 모두들 논뚝을 고쳐요…
—내버려 둬라 우리는 일 없어…

—비 오는데 논뚝이 안터질까요?
—괜찮아 요행 잘 오는걸…

—얘 이게 웬일이냐?
—논뚝이 터져서 고기가 들었어요.

일부 농민들 중에는 관개 수리 및 제방 공사에는 동원을 기피하며 안일하게만 지내려다가 가물과 장마 등으로 농사를 망쳐먹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농촌으로 가는 길

함남 신상 고급 중학교 졸업생 리 창일 동무와 김구철 동무는 자기들의 보람찬 일터인 농촌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야! 참 광활한 논벌이야… 마음이 탁 트이고 힘이 저절로 솟네』

『난 오늘 이 길을 이렇게 걸으며 농촌으로 찾아가게 되는 생각을 하니 참 유쾌하네』

『걸음이 저절로 옮겨 지지…』

『난 얼마 전까지도 동무하구 다투었지』

『다툰게 아니라 서로 자기 희망을 말하고 있었지』

『난 말이야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할 대신 이를 경시하였단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부끄러워 허허허……』

『내가 갈팡 질팡 거리며 들뜬 생각을 하구 있을 때 창일 동무가「난 농촌으로 갈걸 결심 했어 농민의 자식으로 태여난 내가 고향땅을 행복하고 문명한 살림터로 건설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이야 나는 이미 농촌으로 갈 생각을 품었으며 특히 내각 결정 57호가 발표되자 더 결심이 새로워 졌어 농촌은 진정 나의 희망이며 학교며 보람찬 일터야! 농촌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하고 말하지 않았어…』

『그때 확실히 구철 동무는 마음이 들떴었지』

『창일 동무가 그때 그렇게 나한테 자기 희망을 말하여 주지 않았던들 난 더 오래 구름에 둥둥 뜬 생각을 했을거야』

『그럼 내가 구철 동무에게 아주 훌륭하게 선전 사업을 한 셈이로군』

『말하자면 아주 "특효"를 낸 선전 사업이였지』

『하하하 정말 "특효"였었나 그럼 앞으로 더 할까?』

『인제 필요 없어 이렇게 힘 있는 발걸음으로 농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지 않아 하하하』

『구철 동무! 우리 다 같이 로동 속에서 단련되고 생활 속에서 배우며 저 광활한 농촌의 주인이 되잔 말야!』

『응! 정말 자랑할만한 농촌의 새 주인공으로서 힘껏 일하기요!』

농촌 건설을 위하여

공화국의 제대 군인들과 청년 학생들은 부유하고 문화적인 농촌 건설을 위하여 원대한 희망과 결의를 다지며 매일과 같이 오곡이 풍경치는 아름다운 향로로 진출하고 있다

농촌은 새 일군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안창수 그림

판이한 두 세계

알고보면 모두 좋은 일

-여보게 만석이! 자네 무슨 좋은 일이 있나보네 그려!
-이 사람아! 소식을 모르거든 잠자쿠 있게나……
-뭔스러… 뽐낼것 없어 얼마나 좋은 일인지는 몰라도……
-말 말게… 모두들 엉덩이 춤 추게 되였네
-여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 좋고 내 나쁜 일은 아니겠지
-이를테면 나 좋고 자네 좋고 모두 좋은 일이라니 글쎄 이 사람아! 운반 도구에 보관 장소며 소와 말들의 정류소까지 그리고 또 매점대며 농민들을 위한 온갖 편의 시설을 갖추어 준다니 얼마나 좋은가!
-여보게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난 알아 들을 수가 없네 그려
-엣다 이 사람아 이렇게 코 밑에 밧싹 들어 대야만 알겠나? 그렇기에 내 늘상 신문을 보라 했지
-뭐? 농민 시장을 설치하고 농민들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제반 시설을 갖추어 주어서 곡물을 포함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방조를 준다고… 여보게 자네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정말인가?!
-이 사람이 정신을 빼서 퐁무니에 찼나…… 자기 눈으로 읽어 보고서두 그래 내각 결정을 몰라 봐?!
-농민 시장의 제반 시설을 갖추어 준다! 이거야 정말 농민 좋고 사는 사람 좋고 모두 좋지 않은가 말야
-여보게! 더퍼놓고 좋아만 할게 아니라이 문제는 농민 시장을 옳게 리용할 줄 알아야 한단 말야 우리 농민들이나 로동자들에게 실속 있도록 자각해서 리용해야만 한다이……
-하긴 그래… 해방 후 가만이 앉아서 땅의 주인이 되니까 제 잘났다고 건달치며 제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놈의 『욕심병』을 어서 뿌리 뽑아야 하지
-그렇기에 말이라이… 우선 국가적 립장에서 농민 시장을 리용해야 한단 말야… 도시의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진정한 농민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여보게 그만하면 알겠으니 인제 누가 더 많이 알곡 수확을 내나 내기나 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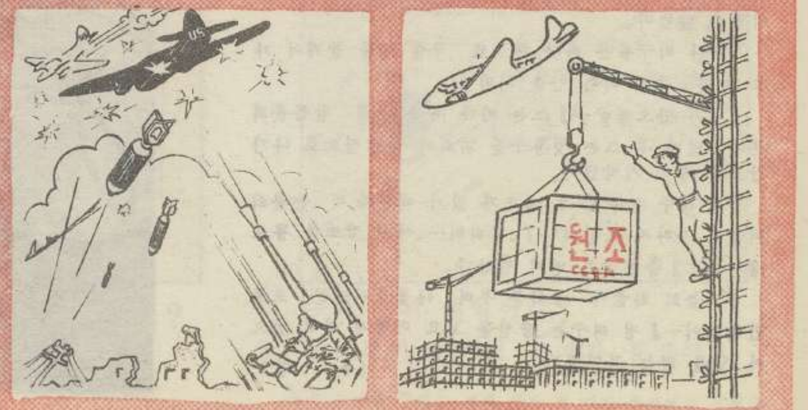
리영춘 그림

향기 풍기는 꽃다발을 안은 공화국 어린이들은 흥겨이 8·15 해방 10주년 기념일을 노래와 춤으로써 맞이한다

행복을 빼앗긴 남조선 어린이들은 오늘도 가시덤불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다

불굴의 투쟁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고 감격의 8·15 해방을 맞았다



미제의 만행을 반대하여 싸웠고 장엄한 로력 투쟁에 나섰다

최한진 그림

탑조등

누가 주인 다운가

우리는 눈부신 로력 투쟁의 나날 행복한 생활 속에서 수 많은 참다운 주인들을 본다。

간리 선로반원 김 종원 동무는 보통강 제1 교량에서 스레징 보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였다。그는 앞으로 세 시간 밖에 남지 않은 렬차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리에 밧줄을 매고 공중에 매달려서 해야 하는 곤난한 작업으로 부러진 보를 떼내고 새 보를 솜씨 있게 교체하였다。그리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러나 이 선로반 일부 동무들은 렬차 서행 통지나 해 놓고 래일로 수리 작업을 미루자고 중언부언 고집을 부렸다니 만일 그들이 끝까지 김 종원 동무의 뒤를 따라나서지 않았던들 김 종원 동무의 숭고한 책임성과 헌신적 사업 정신을 본받지 못했으리라!

호상 방조의 미풍

서로가 리해하고 사랑하며 힘껏 도웁자! 어느 곳을 가든지 제 고향처럼 아늑한 행복감을 가지도록……

제대 군인 리 영주 동무는 철원군 선봉 농업 협동 조합으로 왔다。조합원들은 그를 친 동생이나 아들처럼 친절히 대해 주었다。리 영주 동무는 첫날부터 열성적으로 꾸준히 일을 하였다。모두들 그를 조합의 보배처럼 극진히 사랑했으며 마을 처녀 이쁜이에게 장가를 들였고 새 집을 지여 주었다。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순희 할머니는 솥을 한개 선물하였고 군칠 령감은 쌀을 한말 가져 왔으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릇과 부식물을 제가끔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미풍을 보였다。

그러나 순천군 상일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리 군삼은 자기 채소전에 들어 온 조합원의 닭 두마리를 몽둥이로 때려 잡는 심술 궂고 욕심 많고 인정 없는 고약한 습성이 있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는 우리의 새로운 락원과 진정한 행복을 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송두리채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할 일……

그대로 못볼 일

일상 생활 속에서 조선 사람의 아름다운 도덕적 풍모는 어데서나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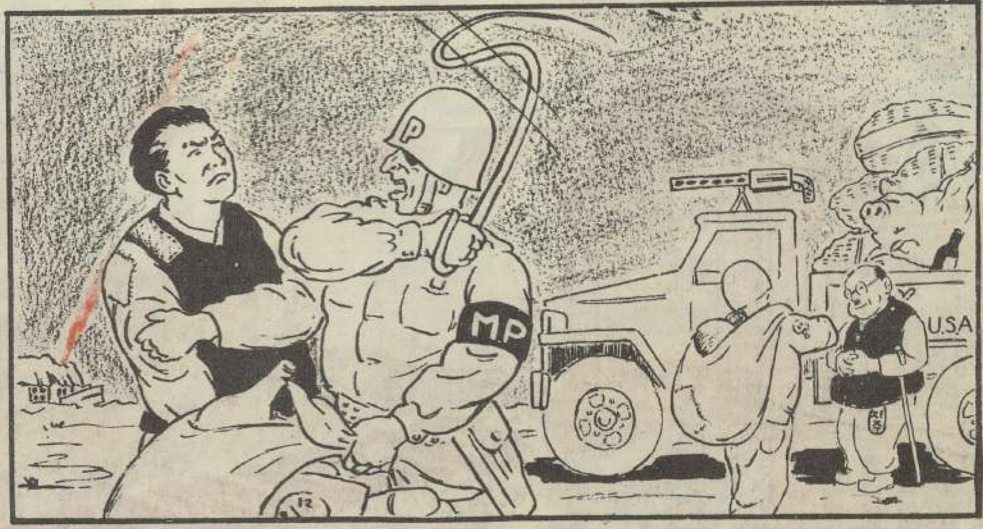
거리에서 길 걷기에 어려워 하는 로인의 손을 잡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며 복잡한 차 내에서 로인과 어머니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며 또는 국영 상점과 식당과 모든 복잡한 곳에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접대하는 정경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인가

그러나 가끔 『통행 금지』라고 써 붙인 표식을 뻔히 보면서도 못본체 록지를 밟고 건너가는 뻔뻔스런 심사와 소설책에만 정신이 팔려 찾아 온 고객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일부 일군들을 볼 때처럼 불쾌한 일은 없다。

조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도덕적 품성을 더욱 높이도록 서로서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일…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공화국의 전체 농민들은 당과 정부의 끊임없는 배려와 방조에 의하여 전시하 파괴된 생활을 급속히 회복하고 새로운 향상의 길로 들어 섰다



적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했을 때…

지금은 끊임 없는 배려와 방조를 받는다

최영근 그림

평범치 않은 평범한 일

아직도 일부 일군들은 혁명적 경각성이 무딘 데로부터 사업에서 무규률과 무질서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중요한 문건과 공구의 행처를 모름으로써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바늘도 아닌데 이놈의 서류가 어델 갔을까? 왼종일 찾아도 없으니…

-다들 퇴근하는데 동무는 무엇을 하오?
-왼종일 찾아도 도구가 없으니 기계 고장을 어떻게 한담…

안창수 그림

송용남 그림

우리의 명절!

대동강 구비쳐 흐르는 모란봉 중턱에 하늘 높이 해방탑은 거연히 섰다。

심장 같이 붉은 꽃! 탑에 드리자! 내 조국 통일의 불타는 념원 속에 우리의 명절— 8·15! 이 날을 맞는 해방 10년의 력사 눈부신 이 땅… 만일 쏘련 군대의 영웅적 진주가 없었던들 우리는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며 민주 기지의 창건도 우리의 권리와 행복한 생활도 없었을 것이며 미제 침략을 물리치고 자기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고수할 수도 영웅적 인민으로서의 긍지감도 지닐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이 나라 방방곡곡에는 대하처럼 구비치는 인민의 힘으로 이룩한 창조의 열매 찬란하여라!

형제 쏘련을 비롯한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손길 따사롭고… 휠 휠 휘날리는 기폭들은 빛나는 전망을 펼치고 오색 찬란한 그림카트에는 우리들의 억세인 투지가 아로새겨졌다。 공장 광산 운수 직장 건설장들에서는 증산의 불길 높고 전체 농민들은 알곡 총수확고를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해 일떠섰다。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우리의 단결된 힘은 오늘도 이 땅 우에 기념비를 세운다。 생활의 희열은 분수마냥 뿜어 행복의 꽃! 아름답게 핀다!

8·15 해방 10주년!

이날! 쓰딸린거리로! 김 일성 광장으로! 줄기차게 밀리며 오각별 찬란한 해방탑을 우러러 우리 다 같이 심장 같이 붉은 꽃다발을 드리자!

해방의 감격 속에 자라난 10년!

해방의 은인—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우리 조국 강토에 광명을 가져다 주었다…

안창수 그림

평화의 천사— 위대한 쏘련 인민은 끊임 없는 원조로써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다

КРОКОДИЛ— 쏘련 "끄로꼬질사" (특별 기고)

리 승만의 내각 회의

치마 자락까지 뜯어 먹는 리 승만의『의복 간소화』정책

—재정이 곤난한데…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 이 맹추야!

—이젠 의복이라도 벳기란 말이야…

—알겠니? 빨랑 빨랑 해라…

—됐다! 그렇게 몽땅 뜯어 드려라!

리영준 그림

고양이의 친교

한 계 홍

고양이 앞에서 쥐라는짐승은 넋을 잃고 온몸을 군밤알 같이 옹크러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살아 보겠다고 갈팡 질팡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고양이는 단숨에 앞발로 덮치고 깨물어 먹기도 하고 미구에 잡아 먹고 말면서도 으르렁 대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고양이 쥐생각의 친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종류의 친교를 사람들의 세계에 전파하는 자들 "약육 강식"의 고취자들이 있고 그의 집달리도 세상에는 있다。

1899년 미 서 전쟁이 있었다。 비률빈에 독립을 준다고 떠버리면서 대 아메리카의 성조기를 들고 미국은 비률빈에서 서반아 군대를 단숨에 몰아 냈다。 그 후의 비률빈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던가? 이 일이 고양이와 같은 짐승의 일은 아니였것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양이 쥐생각 격의『친교』라고 했다。

이런 실례를 성조기의 력사에서는 무수히 찾아 볼 수 있으나 손쉽게 리 승만과의 경우를 가지고 보자……

남조선 큰 거리마다에는 피 • 엑스 시장이라는 기괴한 시장이 있다。 큰 고양이의 쥐생각『친교』에 의해 남조선에 온 미국 병정들 축에는 존 • 맥카리라는 뉴욕 출신의 한 병사가 있다。 그는『미국식 생활 양식』에 물젖었다。처음 럭키스트라, 캬멜, 쬬꼬렛, 쮸인껌, 통졸임, 소세지, 군복 등 눈에 띠우는 것이면 모조리 병영에서 훔쳐다。서울 남대문통 피 • 엑스 시장에서 팔아 주색의 밑천으로 탕진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훔쳐서 파는 것이 졸렬하다고 여기는 때가 왔다。그후에는 이골목에서 팔고서— 미국의 군용품을 어데서 훔쳤서— 하고 저골목에 가서는 눈알을 부라리며 도로 빼앗아냈다。 꿩먹고 알 먹는 격의 흥취에 존은 그만 신바람이 나서 닥치는대로 뺏뜨렸다。

—나는 미국식 생활의 아들 피 • 엑스 시장은 나의 무대 피 • 엑스 시장이 있는한 나의 운명을 빼앗을 놈은 없다— 그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피 • 엑스 시장에만 있지 않다。

피 • 엑스 시장 아닌 남조선 땅에는 썩은 밀가루, 고급 화장품, 그밖에 온갖 사치품만이 범람한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실은 배가 남조선 항구에서 기적을 울리기 전 뉴욕과 워싱톤에서는 중석, 금, 은, 광석 그리고 귀중한 남조선 자원들의 경매가 락찰된다。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바꾸어 지면 남조선 산업과 농촌은 페허에 가까워가고 월스트리트들은 기름진 배를 두드린다。

그러면 리 승만은 —거룩한 하느님 미국의 덕분— 을 되뇌이고 미국의 방송은『원조』를 소리 높이 웨친다。

세상은 이것을 고양이의 쥐생각 친교라고 한다。 그런데 고양이의『친교』가 한번은 놈들의 력사에서도 큰 경을 쳤다。 120만 이상의 미국 병정 800억 딸라의 군사비 수천 대의 비행기와 지어는『페스트전사』까지 동원시켜 불장난을 하다가 남은 것은 수십만의 시체와 푸른 깃발을 이름 모를 냇가에 처박고 말은 것 뿐이다。

그래서 백악관은 두통과 심뇌 끝에『기적』을 발견했다。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라—(아이크)

서뿔리 앞장 나서 망신하느니 남의 불에 게 잡자는 것?!

그리고는 백악관도 떠들석하게 능청스럽고 호탕한 웃음을 웃었다。

그 뒤로 양복에 두루마기를 입은『씽만 • 리』는 대포밥 모으기에 골병 들었고 허파가 부은 그는 북진—북진—고함쳤다。

그러나 고양이 쥐생각 격의『친교』가 성조기의 활무대로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래일에는 고양이 쥐생각의 친교는 운명을 고하리라!

EULENSPIEGEL—독일 "오이렌스삐겔사" (특별 기고) 게인짜 베링그 그림

—덜레스 장관!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쌍동이들을 구별합니까?

—얻어 맞어 넓쩍하게 부풀어 오른 손가락과 타상을 입은 눈을 가진자가 바로 리 승만이요.

미국제 쌍동이

남조선의 리 승만이와 서부 독일의 아데나우워는 흉칙스런 인상을 주는 그 얼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민의 반역자인 점에서도 끔찍하게 흡사하다。

그 뿐인가? 이 두 추물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꼭 같이 미국에서 장가를 들게 되였으며 "대통령" 감투까지도 꼭 같이 얻어 쓰게 되였느냔 말이다。

하나는 남조선에서 또 하나는 서부 독일에서 미국을 위하여 충성이 지극한 이 쌍동이는 먹는 심보까지도 똑 같다。그래서 두 추물들은 자기 조국을 팔아 먹기에 미쳐 날뛰는 것은 물론이요 지어는 근심 걱정하는 점에서도 똑 같다。즉『우리의 걱정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그러나 평화의 목소리는?!』하고… 전쟁을 웨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쌍동이는 미국 병사의 보호가 있음으로서만 똑 같은『정치』를 한다。즉 사기, 허위, 중상, 략탈, 강간, 테로 등……

그런데 다만 이 추물들이 구별되는 점은 하나는 이미 리치웨이 지도 밑에 동족 상쟁의 불장난을 함부로 하다가 잔뜩 얻어 맞아서 낯짝이 멍들고 더욱 부어 터진 것 뿐인데 그러나 이 추물들의 용모며 경력이며 행동이나 생각하는 바가 미국제 "쌍동이" 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미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의족

지난 2년 동안 군사 정전 위원회는 이미 60차 이상의 회합들을 가지었다 이 회의들의 기록 문건들은 미국 측이 조선 정전 협정을 계속 부절히 위반한데 대한 엄중한 사실들로써 충만되여 있다 이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는 미제는 리 승만을 사촉하여 정전 협정의 무효 및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폐지하자고 발광적으로 떠들어 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장진광 그림

사실은 말한다

피까지 빨리운다

『여보게! 이놈으 공장에선 이달 임금도 또 깔아치울 모양 안야? 아직껏 아무 말 없는 꼴이… 』

『이달이라고 특별하게 제대로 줄리가 있을까 뭐? 어떻게나 지금 있는 로동자들을 쭈리기 위해선 해고시킬 구실이나 잡을려고 잔뜩 노리고만 있는 놈들이…』

『그래도 량심이 있지? 몇푼 안되는 임금이나마 제때 주지 않으면 8.15명절은 오는데 굶어 죽으란 말인가 개놈들 같으니… 』

『허 자네도 미국 놈들이나 리 승만 도당들이 8.15명절을 알게 무언가… 편스리 뭐라 말하면 또 체포다 해고다… 하고 보까댈 테니 굶어죽지 않기 위해선『혈액 은행』이나 찾아 갈 수 밖에……』

『그러니 해방 후 10년 동안의 노예 로동과 기아 임금으로 이 꼴이 된 것도 원통한데 거기에 또『혈액 은행』거래로 피까지 빨려우니 이거야 생 죽음 아닌가……』

곰이라 발바닥을 핥으랴?

『아니 왜 짐들을 꾸리는거요? 간다 간다 하드니만 영 떠나 갈랑가배…』

『그럼 어쩔 것이요 농사랑건 코딱지만 하게 진 것을 봄내 꾸어 먹은 량식 몫으로 건너말 부잣집에 몽땅 차압 당했으니 인제 죽을 수 밖엔 없당께로…』

『그러니 가면 어데로 갈랑기요? 우리도 따라 가야겠구만… "분배 농지 상환곡" 이다 "토지 수득세" 다 "저축미" 다… 하고 아이 보다도 배꼽이 크게 쌀을 뺏아 가면서 또 수십가지의 가렴 잡세를 내라고 하니 정말 이놈으 세상이 개 갈당깨로……』

『리 승만 박사 좋다고 하드니만 해방된지 10년 동안에 새끼는 국군으로 끌려가 죽고 인제 땅 잃고 집 잃고 요모양 요꼴이 되였으니 어쩔 것이람……』

『속담에 "흉년에 윤달 끼였다" 드니 비료 없어 농사도 안되는 데다가 작구 작구 뜯어만 갈라코 하니 백성들은 "곰이라 발바닥을 핥으란" 말인가? 원쑤 같은 놈들이……』

대포밥은 될 수 없다

『오빠! 몸 조심 해요 지금 "병역 기피자 단속 월간" 이래요』

『나도 들었어… 개놈들 같으니 전번에는 "도망병 체포 기간"이라 하며 지랄 치더니 인제 또 기피자 단속 월간여……』

『글쎄 징병을 기피한 사람네 집에다가 푸른기를 꽂아 표해 놓고서 헌병 경찰 테로 단체들이 잡으러 다니지 안아요 참……』

『그게 소위 "징병 기피자 색출대" 란 거야… 검거 책임량이 있어가지고 상금까지 준다는 바람에 미쳐 날뛰는……』

『그러니 오빠! 어떻게 해요 학교에 못다니는건 고사하고 놈들에게 잡히면 …』

『난 일 없어 너나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서 잘 싸워야 해……』

『오빠! 나도 학교를 그만 두어야겠어요 이번에 또 학교 호국단비, 신영비, 시설비, 사친회 추가금 등 터무니 없이 8천 7백여환을 당장 내라는데 우리 형편에 어떻게 중학교를 다니겠어요……』

『그러니 해방 후 10년 간에 학교가 아니라 모리장으로 군사 련병장으로 완전히 변하고 말았단 말야……』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하두 어굴해서 파학으로 항거하면 헌병이며 형사놈들이 몰려와서 구타하고 체포해 가니 ……』

『그렇다고 투쟁을 멈춰서는 안되지……』

『누가 멈추나요 뭐… 난 오빠나 국군으로 안끌려 갔으면 좋겠어요』

『국군? 누구를 위한 국군인가 말야… 어림도 없지 난 미국놈을 위한 대포밥으론 절대로 될 수 없어!』

이래서야 살 수 있나?

『복순 어머니 "의복 간소화" 란게 다 무엇인가요?』

『아이구 말도 마시요 망칙해서… 그게 옷 고름이나 동정도 달지 말고 저고리는 겨드랑 밑 밧싹 닿게 하고 치마는 무릎도 못가리게 반 동갱이에다가 쪼작걸음으로나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통치마를 해 입으라는 새 법이라우……』

『아니 그게 정말이요 해방 후 10년 동안이나 그만큼 뜯어 먹었으면 됐지……인제 의복마저 몽땅 뜯어 먹구 싶어진게로군요……』

『누군 아우… 뜯어 먹다보니 옷 고름 동정까지도 뜯어먹고 싶어 그러는지를』

『정말 "벼룩 선지 내여 먹는다" 드니 어쩌면 그렇게도 렴치가 없겠소 그 "대통령"인지…… 무언지는』

『글쎄 이런 어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녀성의 해방은커녕 미국놈들을 위한 양갈보 아니면 제놈들의 롱락물을 만들려고만 하지… 게다가 또 전쟁 준비를 하자니까 군사비를 마련하느라고 온갖 가렴잡세를 물리여 뜯어만 가더니 심지어는 의복까지도 제대로 못해 입게 허울 좋은 "의복 간소화"다 하여 또 뜯어 먹겠다고 눈깔이 벌겋져서 성화를 대니… 이래서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느 때나 이런 꼴을 안보고 살게 될는지 생각하면 분통해 죽겠어요…』

hosteni— 알바니야 '호스테니사' (특별 기고)

전탁 일로

20세기의 똥기호떼

미제의 침략발광 10주년

30년간 길러낸『보람』이 있어…

같은 놈들이 떠 받들어 괴뢰 국부를 삼은 후에…

상전의 구령대로 짖고 또 짖어

말 잘 듣는 졸개를 개구멍에 몰아 넣어 이북을 침공…

얻어 먹긴 고사하고 되게 맞어 깨갱 깽갱 끌 끌…

고질든 제버릇 개 못주어 또 다시『북진』『북진』…

박승히 그림

개 발광

백인균 그림

—이놈들아! 절대로 보도하지 말고
닥쳐라 닥쳐!

리 승만 매국 역도는 세계 인민들의 평화에 대한 념원을 반영하고 있는 4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를 청천 벽력 같은 공포로 대하면서 남조선의 신문 통신들이 보도하는 것 조차 금지하였다

또하나의 잠꼬대

미국 상원 의원 윌리얌 노우렌드 (깔리포르니야 주 출신)는 사회 문제 분야의 연구에 대하여 흥미를 가졌다。유•피 통신사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상원 의원은 자기의 연구 대상으로서 자기가 출생한 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택하였다。그는 진정코 이렇게 말하였다。즉 ″10년을 기한하고 누구의 정책이 더 잘 되겠는가를 명백하게 알기 위하여 중국의 령토를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구분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마 그를 둘러싼 사람들 중 어느한 사람도 이 눈뜨고 잠꼬대 하는 상원 의원을 깨우쳐 주지 않았을 것이다。사실 ″누구의 정책이 더 잘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인민이 1949년에 명백하게 결정했다는 것은 전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는가!

해로운 오리들

홍콩에서 살고 있는 가금 장사군들은 오래 전부터 합중국에다 홍콩임으로 한 오리들을 수출하고 있다。미국의 주인들은 흥겨웁게 그것을 받아 들이군 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홍콩의 수출자들은 몹시 놀라웁게도 최근에 보낸 오리 통졸임들을 전부 되 돌려 받았다。

분명히 대양 건너 지식의 대가들은 오리의 가정 출신 성분 연구에 몰두하자 비록 우에 말한 오리들이 홍콩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조상은 언제인가 중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렇다 치면 이 오리들은 그들로 말하면 빨갱이며 반역적이다。『순수한』미국 사람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한 ″과오〃이며 ″범죄〃일 것이다。

고로꼬질 16호에서
(한 동신 역)

현 철

요지음 미국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으면서 1955—1956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대외『원조』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죄악』속에 빠진 불상한 사람들을『하느님의 거룩한 사도』인 목사다운『자비심』을 가지고 오늘 워싱톤의『자선가』들은 이 법안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특히 이 법안에 예견된 대외 원조 총액의 거의 3분지 2가『몽매와 락후 질병과 아사』가 지배하고 있는 아세아 및 극동 제국에 배당되였다는 데 대하여 더욱 크게 강조하면서 소란스러운 나팔을 불고 있다。

이에는 월스트리트의 사환군들인 아이젠하워를 두목으로 하는 덜레스 스탓센 등이 선봉을 서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어용 출판물들의 반주도 그럴듯이 들려 온다。

그러나 이 괴이한 음악이 어데까지나 식인종들의 음악에 흡사하다는 사실을 아마도 워싱톤의 장사군들은 모르는척 할려는 모양이다。그렇지만『몽매와 락후, 질병과 아사』에 빠진 아세아 및 극동 제국에 대한 미국의『자선심』이 이 나라들의 운명에 무엇을 다시 첨가하여 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그나마 이『원조』의 80%가 군사적 목적에 있다는 것을 고려에 넣을 때 그것은 더욱 명백하다。

비교적 많지 않은『순수한』경제적『원조』에 관하여 말한다 하여도 그것은 딸라의 미끼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워싱톤의『자선가』들은『선택된 민족』이『버림 받은 민족들』에 대한『자비심』에 관하여 자주『하느님』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식『원조』의 본질을 감추려는 워싱톤의 공식 대표들과는 달리 미국 실업가들은 약소 국가에 대한 그들의 투자가 결코 박애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 실업계의 저명한 대표자인 밀로퍼킨스는『만약 목전에 국외 활동의 모험(?)에 정비례되는 리윤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의 저축금 (사실에 있어선 략탈금이다)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선차적인 것이니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라고 해연 자약하게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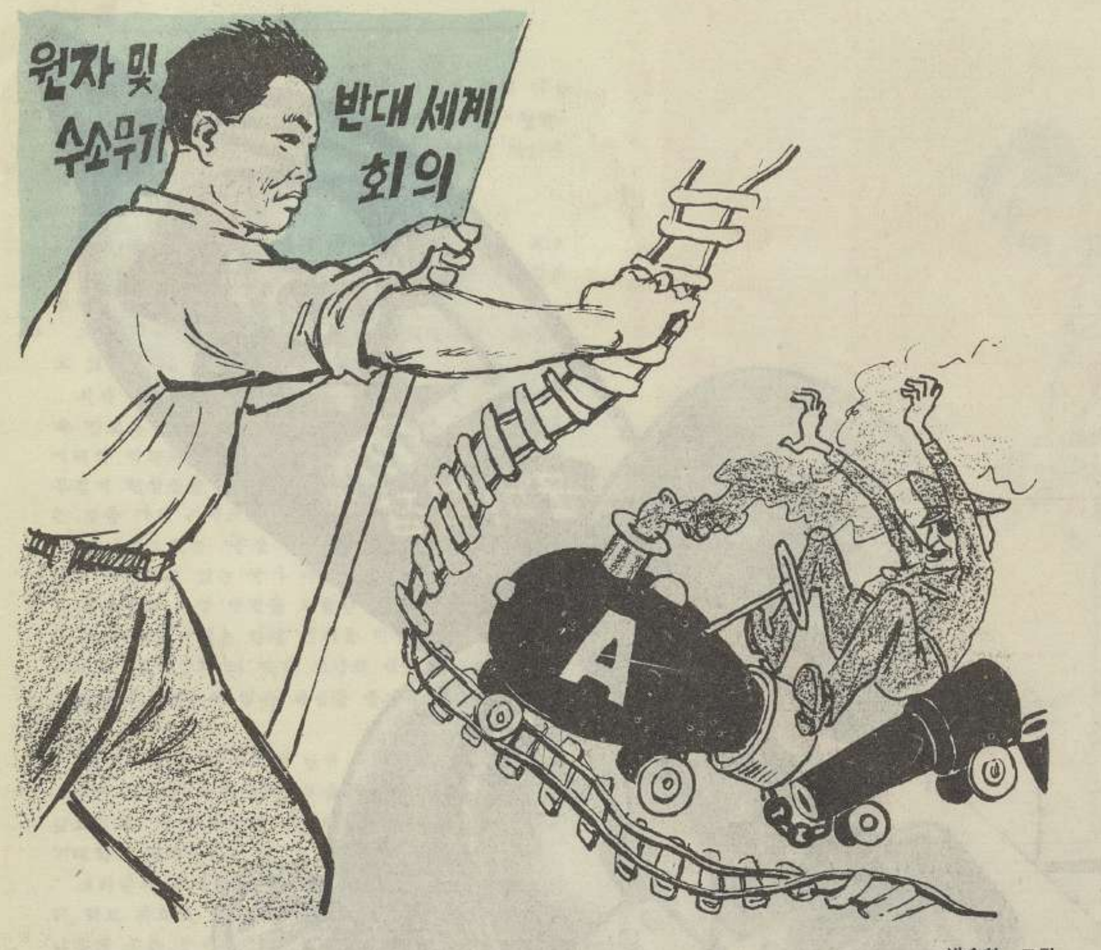
물론 파렴치한 말이기는 하나 목적을 미화하는 워싱톤의『자선가』들 보다 솔직한 면에서는 그래도 나은 셈이다。

최초에는 워싱톤의『대담한 새 푸로그람』인『락후한 지역의 발전과 형편 개선 대책』인『원조』를 진짜로 믿던 광신자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자선심』에 의한『원조』의 댓가로 희생이 된 나라들의 운명—영국과 불란서 특히는 토이기 타이 비률빈 남조선 등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똑똑히 알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믿을 자로서는 워싱톤의 상전처럼 사고하며 관찰하며 행동하여 자기를 우매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습관된 자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원조』에 대하여는 미국의 보수적인 작가이며 평론가인 멘켄의 유명한 말 즉『만약 수명의 대 실업가들이 원탁 회의를 열고 ″봉사〃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누가 반드시 략탈되고야 말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구태여 샤르크홈스(유명한 탐정—필자주)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그의 견해가 일련의 미국식『원조』의 력사에 대한 훌륭한 머릿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선량한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평화는 전쟁을 타승한다



박승히 그림

미제가 감행한 히로시마 원자탄 폭격 10주년—바로 이날에 무고한 인민을 대량 살륙한 원자 및 수소 무기 반대 세계 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여 전쟁 방화자들을 규탄했다

일본 ″적기〃신문에서 전재

松山文雄 그림

수소탄을 둘러메고 일본을 방문한 방어

미제는 태평양에서 수차에 걸친 수소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소탄의 방사성에 중독이 된 수 많은 방어들로 인하여 일본 인민들이 입은 재난은 컸다

유•엔 헌장의 란포한 위반자

유•엔이 창립된 이래 오늘날까지의 활동에는 유•엔 헌장에 위반된 수 많은 사실들이 있었다 인민들은 유•엔을 자기들의 침략 도구로 계속 리용하려는 미국 지배층의 기도를 견결히 규탄하면서 유•엔이 평화와 국제적 협조 기구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하루 빨리 회복시킬 것을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

장진광 그림

미제의 전쟁 준비를 위한 발광이 심하여 질수록 그는 오직 정치 경제적 파멸의 길우에서 허덕이는것 밖에 아무러한 결과도 가져 올 수 없는 것이다。

장진광 그림

균비 확장으로 인한 곤경

실제적으로 진행중인 붕괴

지난 10년간 자본주의 세계는 해결할수없는 모순에 얽매여 몸부림 쳐왔으며 그의 내부 알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화 됨에 따라서 경제적 파멸의 구렁텅이에로 전락하고 있다。

독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조선 인민군 전사 김 찬식 동지를 비롯한 생산 직장 로동자들 및 농촌 민주 선전실장 동무들로부터 "활살" 편집의 개요와 함께 벽보 자료로 될 수 있는 만화를 게재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다。

"활살"은 공화국의 유일한 풍자 만화 잡지로서 최초에 "호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1946년 8월부터 발간되였습니다。

그후 1948년 1월에 다시 "활살"로 개칭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시사 만화 잡지인 "활살"은 정치 만화 일반 만화 련속 만화와 함께 풍자 소설 풍자시 팜페트 만문 만시를 예리한 비판의 무기로 하여 우리에게 남아 있는 모든 부정적 현상들을 풍자 비판하며 온갖 원쑤들을 폭로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 잡지입니다。즉 대내적으로는 봉건 및 자본주의 사상 잔재에 의하여 산생하고 있는 국가 사회 재산 횡취와 탐오 랑비 및 관료주의 사업 방법을 포함한 일체 부정적 현상들을 비판 시정시키는 한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상과 리 승만 도당의 매국 매족의 죄악적 정책을 폭로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리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활살" 편집 사업에서 인민 대중들의 제때 정확한 신소와 반영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데 비추어 앞으로도 독자 대중의 광범한 반영과 의견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활살" 8월호부터 벽보 자료로 될 수 있는 만화를 게재하오니 널리 리용해 주는 동시 이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부단히 본 편집부에 직접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며 더욱 긴밀한 련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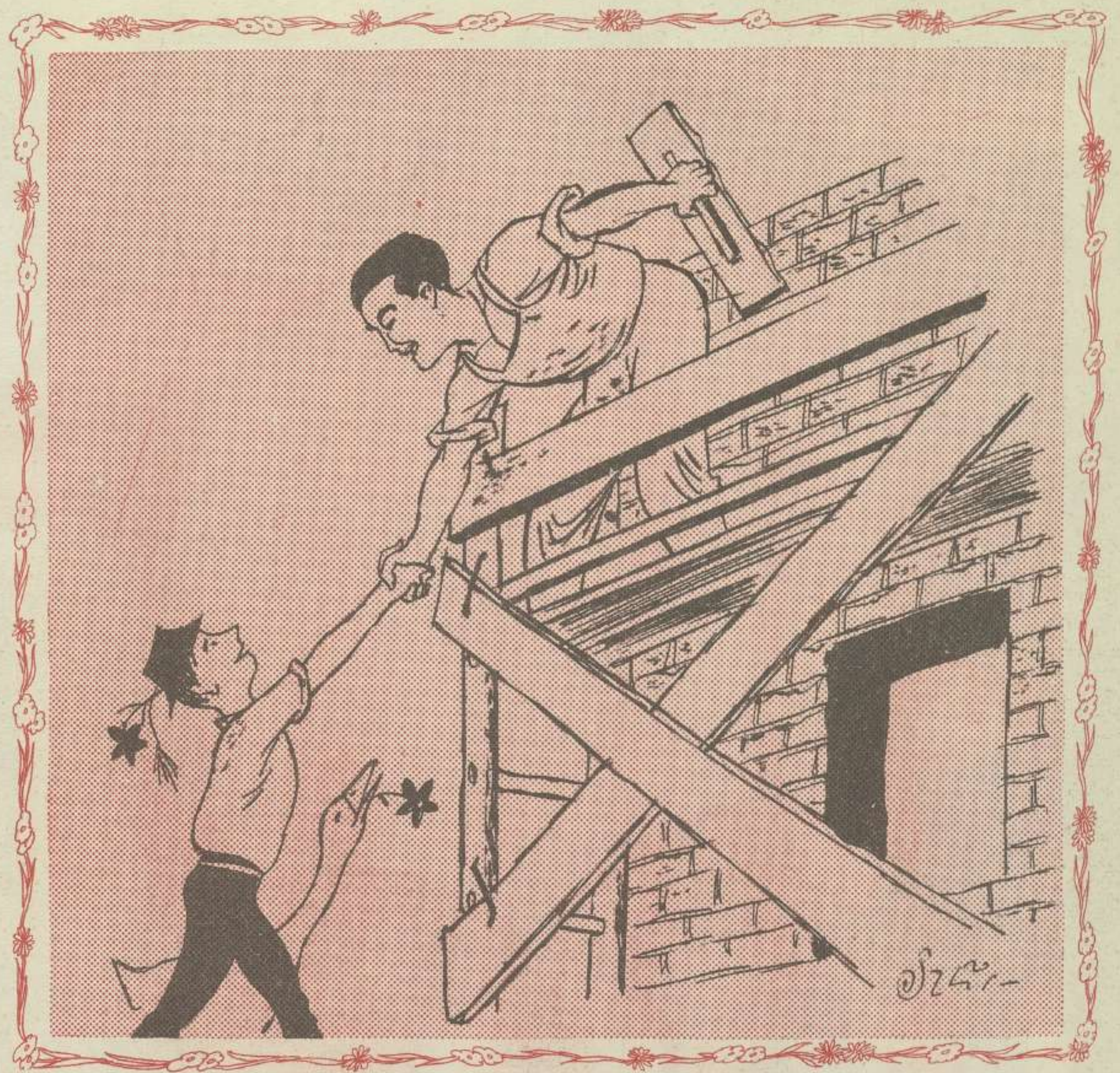
"활살"편집부로부터

대중벽보판에 게재하는 만화에 대하여

만화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그 때마다 제기되는 이런 저런 사회 정치 경제적 깜빠니야 사업에 있어서 예리한 선전 선동 수단의 하나로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쑤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풍자 비판의 무기로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도 만화가 가지는 중요한 작용의 하나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게재되는 만화는 응당 이런 점에 가장 신중한 고려가 돌려지고 있는 것이며 출판물들에 게재된 만화를 각 생산 직장 및 농촌 민주 선전실 등의 벽보판에 복사 리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만화가 가지는 사회 정치 경제적 의의와 사상적 예술적 내용을 옳게 활용하는 방향에서 광범히 리용되여 처리되여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즉 벽보 장식을 위한 목적성 없는 람용에 그치지 말고 어데까지나 매 시기에 따라 해당 기관과 생산 직장 및 농촌 사업에서 제기되는 이런 저런 부정적 현상들과 옳게 결부시켜 출판물에 게재된 만화를 복사 리용하게 된다면 벽보의 선전 선동적 및 교양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관적가치에 있어서도 한결 흥미를 갖게하는 벽보 공작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벽보 공작에서 당과 정부의 제반 시책을 제때 정확하게 대중 속 깊이 침투시키며 제반 사업에서 급진적인 개진을 기할 수 있는 예리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만화를 활용함에 있어서 제기되는것은 출판물에 게재된 만화를 어떻게 복사하여 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본 "활살" 편집부에서는 이런 점에 류의하여 우선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만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사해서 전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취급하여 각 생산 직장 및 농촌 민주 선전실들에서 벽보 공작하는데 참고 할 것을 바랍니다。

Ludas Matyi— 웽그리아 "류다슈마지사" (특별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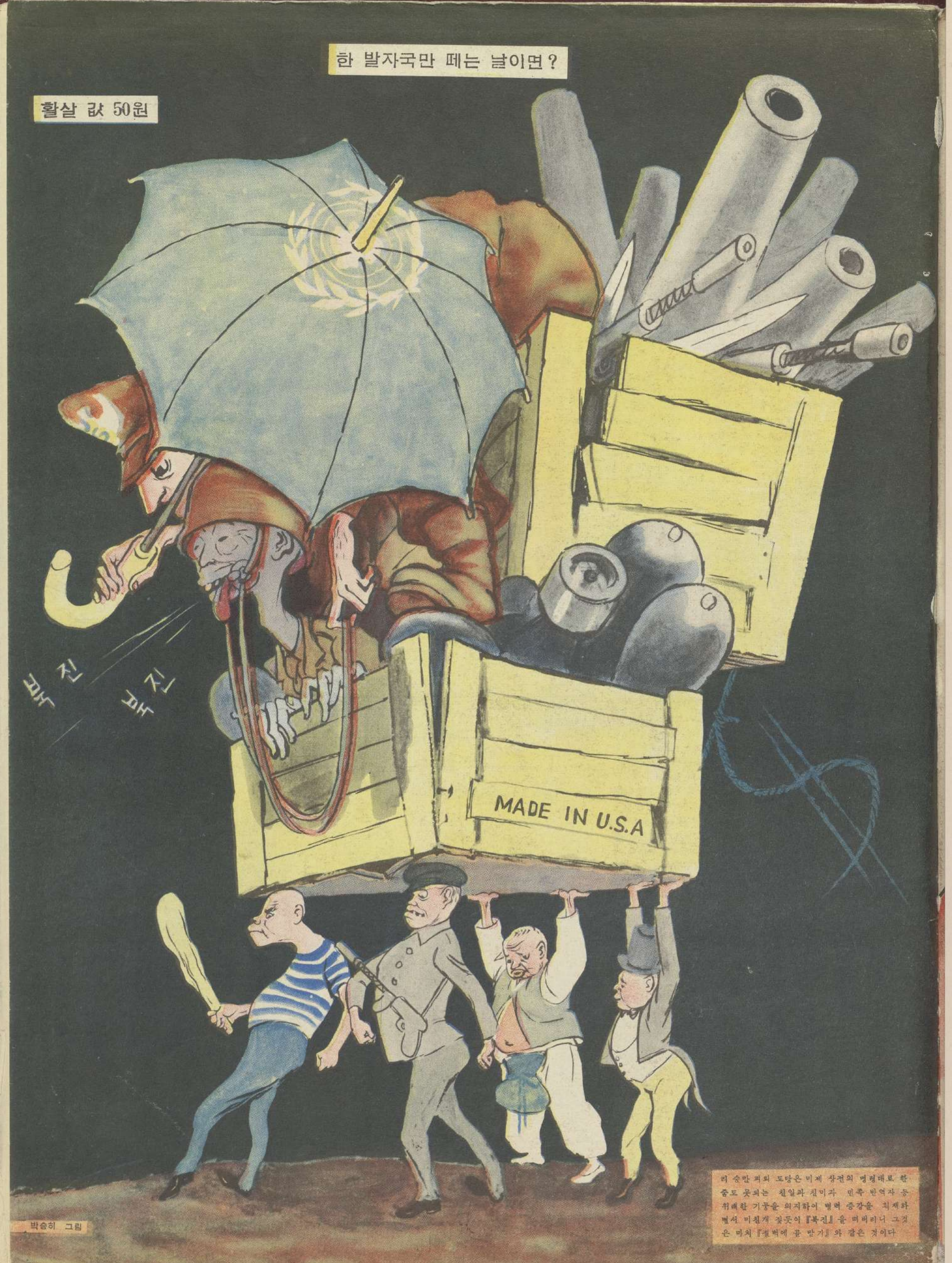
조선 인민의 복구 건설 사업을 축하하여 뻗쳐진 형제적 웽그리야 인민들의 뜨거운 손길

신문 잡지에서 만화를 복사 할때 우선 주의 해야 할점

이 그림은 인쇄 기술상 제약을 고려하여 그려진 만화이다 때문에 완전히 점과 선으로써 그려진 것이니만큼 복사할 때에는 이 그림과 같은 점은 필요치 않다

벽보 만화는 화면이 크고 아무 제한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힘있고 명확한 선으로 그려져야 하며 먹선보다 연한 색갈을 자유로이 쓰데 특히 주의 할 점은 강렬한 3원색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호
서 만 일 신 불 출 리 갑 기 정 현 웅
발행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 사
인쇄소 국립 종합 인쇄소
인쇄 1955. 8. 1 ㄱ…30144
발행 1955. 8. 15 값 (50원)



"인민 조선" "활살" 문예 작품 현상 모집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8•15 해방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사에서는 독자 및 열성 필자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해방후 10년간 근로 인민들 속에서 장성된 문예 창작 성과를 총화하며 그들을 잡지 편집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예 작품 현상 모집을 실시한다.

1. 작품의 주제

(1)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의 해방과 조•쏘 인민간의 형제적 친선.

(2)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

(3)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하에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조선 인민의 투쟁.

특히 해방후 10년간의 인민 경제의 발전 면모와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창조적 투쟁 모습과 날로 향상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

(4)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발휘한 영웅한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및 빨찌산들과 후방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투쟁.

(5) 조국 보위를 위하여 방선에서 높은 경각성 밑에 전투 정치 훈련에 정진하고 있는 인민 군대의 군무 생활 모습.

(6) 인민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더욱 제고하며 고상한 도덕적 품성의 배양 및 반탐오, 반랑비, 반관료주의와 반간첩 투쟁.

(7)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조선 인민의 시종 일관한 투쟁 모습.

(8) 조선 력사에서 애국적 위훈을 세운 우리 선렬들의 투쟁 모습.

(9)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및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각 분야에 걸친 물질적 기술적 원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10)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죄악성과 몰락성을 폭로 규탄하며 남반부 인민들의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모습을 주제로 한 것.

(11)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들과 고귀한 문화 유물들을 형상화한 작품.

2. 모집 종별

(1) 문학 작품

ㄱ. 단시 (풍자시)

ㄴ. 단편 소설 (풍자 소설)

ㄷ. 오체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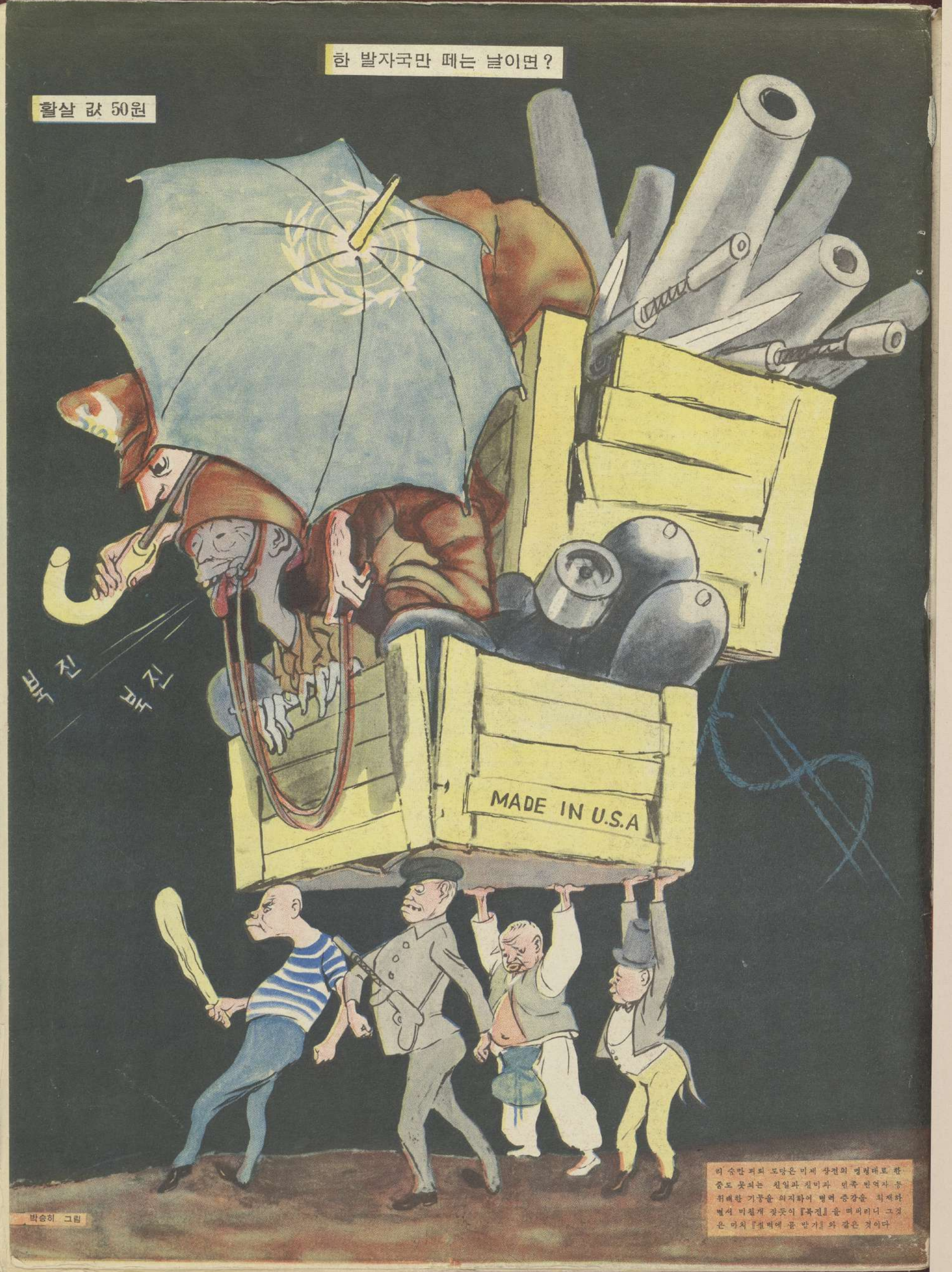
ㄹ. 력사 이야기 (전설, 속담, 리언, 기담, 우화등을 포함)

ㅁ. 펠레똔 (만문 포함)

(2) 미술 작품

ㄱ. 조선화, 유화, 수채화, (20호 내외)

ㄴ. 스켓취



리 승만 괴뢰 도당은 미제 상전의 명령대로 한 줌도 못되는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 등 위태한 기둥을 의지하여 병력 증강을 획책하면서 미친개 짖듯이 『북진』을 떠버리니 그것은 마치 『절벽에 곰 받기』와 같은 것이다

ㄷ. 정치 만화

ㄹ. 련속 만화

ㅁ. 유모어 만화 (사회 생활에서 취재한 교육적 유모어)

(3) **사진 작품**—예술 사진

3. 모 집 기 간

1955년 7월 15일부터 1955년 11월 15일까지

4. 모 집 절 차

(1) **응모 자격**—응모 자격에 제한이 없음.

(2) **작품 제출 방법**

응모 작품은 직접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되 응모자의 성명, 직업, 직위, 년령, 성별, 주소를 명기할것.

응모 작품중 단시, 단편 소설, 오체르크, 력사 이야기, 조선화, 유화, 수채화, 스켓취, 예술 사진등은 **인민 조선사 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며 풍자시, 풍자 소설, 쩰레똔, 만문, 정치 만화, 련속 만화, 련속화, 유모어등은 **활살사 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심 사 발 표

인민 조선, 활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955년 12월 하순에 신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한다.

입상 작품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인민 조선, 활살** 지상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등외 가작을 선출하여 **인민 조선, 활살** 지상에 게재할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한다.

응모 작품을 보낼 때 겉봉에 **현상 응모 작품** 이라고 반드시 기입할것.

응모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시 상

1등 6,000원~20,000원

2등 4,000원~15,000원

3등 2,000원~10,000원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전화—평양 387번)

인 민 조 선 사

평양시 서구역 평화동 (전화—서평양 580번)

활 살 사